2018년 10월 부모교육자료

6세엔 아직 한글을 몰라도 됩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학습과 인지 발달에 대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섯 살이면 한글을 꼭 알아야 하는 나이는 아닙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만 5세 한글을 터득한 아이와 만 6세에 터득한 아이의 초등학교 기간 동안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해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글을 모르는 채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도 1학년 2학기가 되면 한글로 읽고 쓰고 국어를 공부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초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는 차이가 나지 않았고요. 1학년 때 못하면 기가 죽지 않겠나 싶지만 그런 면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만4~5세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면서까지 한글을 무리해서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 우샤 고스와 미 교수팀은 5세부터 글 읽기를 학습한 아이들과 7세부터 시작한 아이들을 10년 가까이 장기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5세에 글자 공부를 시작한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7세에 시작한 아이들보다 더 낮았습니다. 읽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 무리하게 학습을 시도하다간 장기적인 학업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글자를 읽으려 하고 배우길 원한다면 가르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글자 학습을 싫어한다면 느긋하게 기다려 주세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사회는 비교해도 부모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마저 비교하면 아이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책을 읽어주세요. 또 책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이것이 어휘를 늘리고 언어를 발달시키는 방법입니다. 함께 놀이를 하며 상호작용도 많이 해주세요. 부모의 품 안에서 부모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아이는 서서히 불안을 내려놓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 출처: 서천석(2017). 우리 아이 괜찮아요. 예담